



정용문 / 본회 비상근 부회장  
HA산업협의회 회장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문 사장

## 21세기를 지향한 정보통신의 당면과제

21세기 진입을 위한 마지막 10년의 시작인 '91년도는 소련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동·서독의 통일, 동구의 민주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91년을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연초 Gulf전의 발발,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소·동구 시장의 경제 활성화, 소련 쿠데타 실패이후의 연방정부 와해, 유고의 내전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UR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압력 강화 등은 세계 경제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었으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불안마저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 불황의 영향과 서비스와 건설을 중심으로한 파행적 내수경기 활성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있는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풍조와 3D 기피현상 심화 등은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급변하는 상황하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은 세계적으로는 민영화, 규제완화, 표준화 추세와 함께 무선통신의 본격화, 디지털방식의 채용확대를 통한 음성, Data, 영상, 화상 등 통신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공급을 가능케하는 등 과거 어느해와 못지않는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국내 정보통신 산업도 유통시장 개방, 국제 VAN서비스 시장 개방, 선진업체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격차, 후발 개도국의 맹렬한 추격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용량 국설교환기 TDX-10의 상용서비스 시작, 통신위성인 무궁화호 사업을 위한 업무개시, DACOM의 통신 서비스 참여에 의한 국제전화 서비스의 경쟁체제 돌입, 또한 TDX-1B(국산전전자 교환기)의 소련, 필리핀, 니카라구아 등으로의 수출시현으로 통신시스템 제품의 해외진출을 본격화 하였을 뿐 아니라, 무선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2이동통신의 설립을 준비하는 등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한해였다.

세계 유수의 경제 예측기관들이 9월에 발표한 '92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바로셀로나 올림픽 개최, 미국 경기의 호전 등에 힘입어 금년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이라 전망하였으나, 요즈음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경기 회복세 둔화 심화로 당초 전망한 경제 성장률보다 1~1.5%씩 낮은 3%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듯이 내년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정보산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지표가 됨으로써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GNP의 9%정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을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고 관, 학, 산, 연 공동의 노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93년 통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92년도 업계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도약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고비의 한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로, 정보통신이 기술집약 산업임을 재인식하여 첨단 핵심 기술 및 부품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다양한 소비자 Needs의 충족은 물론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기술, 무선기술 등 핵심기술의 확보는 절대적 명제이며, 이를 통한 핵심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선진업체를 추월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제품 품질의 선진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조기술력의 획기적인 향상이다.

제품기술의 발전 및 시장의 변화(Product-Out → Market-In)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이는 원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되고 있다.

또한 완벽한 품질을 갖춘 고신뢰성 제품의 생산,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Image(기업 및 제품)을 구현하여 제값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번째는, 세계경제의 Bloc화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여 수출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현지 상품 기획력을 키우며, 생산 Cost가 저렴하고 부품의 조달이 용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이

나 우수개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곳에 현지 R&D Center를 구축하는 등 국내에서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여 최적의 지역에서 최고의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적 국제화 즉 Globalization의 추진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92년 새해에도 이러한 과제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발휘가 절실히 필요한 한해임을 명심하여야겠다.

이의 실현을 위한 지름길은 정보통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제를 함께 해결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